

第196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8年8月25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現況報告

- 가. 大韓民國學術院
- 나. 國史編纂委員會
- 다. 教員懲戒再審委員會
- 라. 教育行政研修院
- 마. 國際教育振興院
- 바. 國立特殊教育院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

- 가. 大韓民國學術院 1面
- 나. 國史編纂委員會 1面
- 다. 教員懲戒再審委員會 1面
- 라. 教育行政研修院 1面
- 마. 國際教育振興院 1面
- 바. 國立特殊教育院 1面

(14시13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96回國會臨時會 第2次 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文濟豊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鍾漢 15대국회 후반기 院構成이 됨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는 教育部 本부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教育部 本부의 教育政策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直屬機關으로부터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執行部 直屬機關은 물론 본부의 정책을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현한 후 成果分析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직속기관은 국회에서 業務現況을 보고하실 때 이러한 현장에서의 隘路事項과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教育政策을 심의할 때 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직속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들어 주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직속기관에서는 虛心坦懷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現況報告

- 가. 大韓民國學術院
- 나. 國史編纂委員會
- 다. 教員懲戒再審委員會
- 라. 教育行政研修院
- 마. 國際教育振興院
- 바. 國立特殊教育院

(14시17분)

○委員長 咸鍾漢 의사일정 제1항 教育部所管 6個 直屬機關에 대한 現況報告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직속기관들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동 기관들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學術院 事務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學術院 事務局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一般現況, 두번째로 主要業務 推進現況, 세번째로 主要懸案課題, 네번째로 其他報告事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一般現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設置目的 및 機能은 우리 나라의 學術發展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人文·社會科學部門 그리고 自然科學部門의 學者를 國家次元에서 優待·支援하고 그 공로에 보답코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機能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학술연구와 그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학술원상 수여,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沿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8월 文化保護法이 제정되어 회원정원을 80명으로 하였으며 54년3월에는 초대 학술원 회원이 50명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54년7월에는 學術院이 정식으로 開院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2월에는 文化保護法이 개정되어 회원정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85년8월에는 學術院事務局과 藝術院事務局이 통합된 바가 있었고 87년10월에는 學術院 會館을 신축 이전하여 현재의 자리에 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88년12월에는 學術院法이 제정되어 회원정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90년1월에는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이 분리되어 현재 藝術院은 문화부, 현재의 文化觀光部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機構 및 定·現員을 말씀드리면 학술원 기구는 총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그 부속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부가 있어서 6개 분과가 있고 자연과학부에는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149명이 지금 계십니다. 사무국 기구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에는 총무과, 학술진흥과가 있으며 정원은 20명에 현원 2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豫算現況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32억 9,000만원이며 人件費가 그중에 5억9,000만원, 基準經費 10억800만원, 經常經費가 6억9,900이며 事業費로서 18억9,000만원은 회원들에게 매월 드리는 定額手當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咸鍾漢 委員長, 李源馥 幹事와 사회교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主要業務 推進現況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제43회 學術院賞 施賞式이 있습니다. 수상대상은 學術研究 또는 著作이 매우 우수하여 學術發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수여되는 것입니다. 특기할 사항은 '98년도부터 學術院 會員은 수상대상이 될 수 없도록 學術院賞 施賞規程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選定經過는 97년11월에 학술원상 시상요강 확정 및 신문공고를 하였으며 '97년12월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서 교부 및 접수 그리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하였으며 금년 6월 19일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였고 7월 10일에는 총회에서 최종 인준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人文·社會科學部門에서 한전숙 교수, 신용하 교수, 自然科學部門에서는 이현구 교수, 박상대 교수, 김진복 교수 모두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施賞式 行事는 다음달 9월17일 오후 2시에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거행할 예정이며 시상내용은 상장, 휘장, 부상 1인당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것입니다. 참석자는 國會 教育委員長님, 教育部長官님 등 귀빈과 學術院 會員, 學術團體長, 受賞者 등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사업으로서 제26회……

○李在五委員 學術院賞 受賞者 말이지요. 한 번 수상한 사람도 또 수상할 수 있습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受賞하시면 두 번 수여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예를 들어서 한 번 受賞한 사람은 同一 分野에 몇년 이내에는 수상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한 번 받으신 분은 두 번 다시 받으실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예, 알겠습니다.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제26회 學術院 學術大會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21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주제는 “韓國 經濟發展의 새 방향 모색”을 발표하며 발표자는 변형윤회원, 김동기 회원이며 그 밖에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그리고 박 승 중앙대 교수님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政策討論會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李在五委員 안충영 교수는 지금 어느 정부 기관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중앙대 교수였는데 지금 정부 기관에 어디 파견 안나가 있습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에 봤는데 정부에 파견된 것은 아니고 그냥 중앙대 교수로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제발표를 할 때도 전혀……

○李在五委員 정부 무슨 기구에 자문…… 무슨 뭘로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충영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교수 말하는 것 아닙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에 칼럼 내신……

○李在五委員 한번 알아 보십시오.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파견이 아니고 委囑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요? 派遣 常勤勤務하는 것이 아니고?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세번째로 政策討論會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19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박동서 회원님의 ‘행정개혁의 평가’, 이호왕 회원님의 ‘한국의 예방접종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내번째로 全體會員 學術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14일 三星人力開發院에서 정수영 회원의 ‘資本市場 開放과 M&A戰略’ 그리고 김준호 회원의 ‘地球溫暖化와 한국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회원 세미나는 연간 11회 계획중 6회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學術研究 支援을 하고 있습니다.

研究期間은 1년이며 지원과제와 지원금액은 學術研究 11개 과제, 政策研究 2개 과제, 一般研究 2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國際學術機構와의 交流協力이 있습니다.

금년도 國際學術機構 會議 참관은 제5회 아시아 과학협력회의 그리고 제72회 국제학술원연합총회, 국제지구권·생물권연구계획총회 그리고 제9회 태평양과학협회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아시아학술원 연합이사회 및 총회에 참가하며 그리고 98년도 外國學術院과의 交流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 영국학술원, 이스라엘학술원, 프랑스과학아카데미 그리고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왕립인문과학원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학사원 등 주요 국가 학술원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학술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學術總覽 2종 그리고 學術院論文集 2종, 學術院 英文要覽 그리고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大韓民國學術院 會報 등 7종을 지금 발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번째로 主要懸案課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其他報告事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曹雄奎委員 6페이지 보면 98년도 외국학술원과의 교류라고 해가지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하고 인원 3명씩인데 이것은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중화인민공화국쪽에서 우리 나라에 세 사람이 오고 또 파견은 학술원 회원이 대표로서 현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曹雄奎委員 을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항공료는 오는 측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해 주며 마찬가지로 저희들 회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외 체재비나 기타 행사비용은 초청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曹雄奎委員 학술원과의 교류에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교류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曹雄奎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馥 오늘 회의에 국민회의 소속 盧武鉉 委員님께서 처음 나오셨습니다. 지난 번에 상견례 인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盧武鉉 委員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새정치국민회의 盧武鉉 委員입니다.

출신지역구는 종로지역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처음 열릴때 부터 멀리서 다른 일 좀 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 많은 협력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在五委員** 5페이지 학술연구지원에서 지원과제 및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학술연구, 정책연구, 일반연구 과제인데 구체적으로 학술연구과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馥** 이미 기타 알고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국사편찬위원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一般現況과 主要推進課題가 되겠습니다.

一般現況에 있어서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의 設置目的은 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리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 보급함으로써 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機能은 사료의 조사·수집·편찬 및 발간과 국사의 연구·편찬·간행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沿革을 말씀드리면 1946년3월에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문적인 뒷받침을 위한 사료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경북궁 집경당에서 국사관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49년7월에 국사편찬위원회직제가 제정되었습니다. 49년부터 청사가 안정되지 못하다가 75년10월에 남산청사로 이전했지만 이것 역시 협소하고 불안정한 장소여서 여러 가지 과업의 수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1월에 현 과천 청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11월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94년9월 이 사람이 제6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機構 및 定·現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機構는 위원장 밑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임명직과 당연직 15명이 있는데 임명직은 국사편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장관께서 임명하는 14명과 당연직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부장직을 담당하는 사람 1명 해서 모두 위원회 구성 16명으로서 임명직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사학자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기획관리부와 편사부로 2개 부가 있습니다.

기획관리부 밑에 서무과, 기획운영과, 자료관리실이 있고 편사부 밑에는 통사실, 고중세사실, 근현대사실, 사료조사실이 있습니다. 편사부는 당 위원회의 전문적인 학문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기획관리부는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당 위원회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정무직이 1명이고 연구직이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직은 2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편사연구직으로서 편사연구관이 1명, 편사연구사가 22명, 도합 23명과 교육연구관이 파견되어서 일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관이 15명, 교육연구사가 4명 이상 19명으로 연구직이 도합 42명이며 이 42명은 90%가 사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 현재 68%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曹雄奎委員** 연구관과 연구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는 동일합니다.

○**曹雄奎委員** 정·현원을 보면 연구관은 정원보다 5명이 적고 연구사는 현원보다 4명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상 필요에 따라서……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 2월달에 저희 연구관이 증원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원된 사람들을 승진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 여건이 조금 미달하는 점이 있어서 이달 9월에 곧 승진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曹雄奎委員** 그러면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하게 됩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22명 도합 89명이고 비고에 나와 있는 별도정원 2명은 내년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

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기능직은 정원이 19명인데 22명으로 3명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언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들어온 것은 명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3명이 많은데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별정직에서 정리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운전원, 교환원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채용을 언제 하셨습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일시에 같이 채용된 것이 아니라 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李在五委員 기능직 채용은 누가 합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사편찬위원장이 합니다.

○李在五委員 기능직과 별정직 채용권한이 위원장님께 있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도 높은 급수는 교육부장관께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알았습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저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직원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사료를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사료조사를 위해서 전국 각도에 338명의 위촉지방사료조사위원들이 대개 한 도에 두 분 가량 됩니다마는 338명이 협조를 해주시는 지방사료조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서의 한국사관계의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국가 13개 국가에 대학교수가 된 외국인 학자로서 31명이 저희 위촉을 받아가지고 한국사관계의 사료를 수집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협력을 해주는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데 해외사료조사위원과 국내사료조사위원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위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일정한 수당도 나갑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원칙적으로 수당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해외위원들이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 활동성과에 따라서 소정의 실비를 제공을 합니다.

○李在五委員 해외사료조사위원은 대개 어떤 사

람들입니까? 현지에 가 있는 학자들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입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당해 국가의 외국인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국내사료조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국내사료조사위원들은 대개 지방에서 지방사 연구에 종사하거나 문화관계활동을 하거나 해서 지방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에서 위촉을 합니다.

○李在五委員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군요?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신원조회를 의무부를 통해서 외국인학자의 신원조회와 학문성향을 널리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李在五委員 국내사료조사위원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활동실적이 어떻습니까? 이름만 걸어놓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력을 안해주면 저희가 중앙에만 앉아서 가끔 출장해서는 사료수집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李相賢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임명권자가 누구이고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저희 국사편찬위원회가 중간에서 직제가 바뀌면서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임기는 일단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일이라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李在五委員 교육부장관이 제청을 합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북한에 대한 사료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직접적으로는 교섭이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제3국을 통하거나 또 북한을 왕래하는 외국인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해외에 반출하는 이러한 자료들을 입수하고 또 6·25 전쟁당

시 평양을 점령했을 때 입수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입수된 문서를 저희가 연구하고 정리해서 북한 관계자료로서 학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정신문화연구원에 국학연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능하고 한때 統·廢合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신문화연구원과 KDI하고 합쳐가지고 아시아국제대학원설립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의 국학연구기능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기능하고 통합논의가 아직도 유효한가요?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났는데 보셨겠지만 저희는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정신문화연구원은 원래 한국학의 연구에 책임을 지는 그런 세계적인 정신 또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 왔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설치목적에 있다시피 그러한 학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료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자기연구 주제에 따라서 물론 수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전문가들의 집단이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한국사연구를 위해서 기본자료가 되고 또 필요한 것이 되며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입수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국내외에서 수집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편찬해서 자료집을 저희가 국내의 연구기관, 연구학자, 그리고 해외의 연구기관, 연구학자에게 보내는 저희는 학문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국사학을 연구하기 보다는 국사학의 연구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자료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학술기관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李源馥 幹事, 咸鍾漢 委員長과 사회교대)

그러면 施設 및 소장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6,000여평되고 건물수는 한국식 콘크리트 건물 2동이 있습니다. 본관과 국사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국사관은 주로 사료를 소장하는 중요 서고가 되는데 지하에 24시간 전자감시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자료는 모두 16만7,000여종으로써 고서와 고문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닌 일반도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닌 시청각 자료들입니다.

98년도 豫算現況을 말씀드리면 56억2,178만8,000원입니다. 상세한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98년도 예산이 56억인데 인건비가 29억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경상사업비는 18억 밖에 안되고 사업비는 5억3,000인데 거기에 史料研究支援事業, 歷史資料機關 國際交流 이 부분의 예산은 아주 미미한데 이 예산현황만 보면 인건비가 29억이나 되면 사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사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저희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관이 많기 때문에, 전문화된 高級人力이 많기 때문에 다소간 높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다음 주요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는 5분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료조사·수집·분석·정리 및 보존사업과 둘째로는 사료편찬·간행사업과 셋째로 한국사 연구지원 그리고 연구의 결과에 의한 한국사 연구의 사회적인 정착사업 그리고 네번째 사료정리 전문요원 연수사업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세화된 것이 6쪽부터 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위원장님, 현행 추진업무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일일이 위원장님이 설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油印物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좋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曹雄奎委員** 한가지만 묻고 싶은데 여기 현행 추진업무 중에 첫번째가 사료조사·수집·분석·정리 및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의 보존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 水害로 인해서 유실된 사적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自然災害로 예상을 뒤엎는 이런 재난이 계속 닥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적 보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자료가 없으면 대강 설명하고 자료를 구해 주어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홍수로 상당히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유실이 된 것은 저희 국사편찬위원회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자료가 아닙

니다. 文化遺蹟이나 歷史遺蹟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물론 유적도 자료가 됩니다마는 動産的인 자료가 되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챙겨보았습니다마는 아직은 보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曹雄奎委員 다행입니다.

○李源馥委員 주요 간행도서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들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발행부수들이 대충 어느정도나 됩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發行部數는 순수한 학문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나가는 자료집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소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되는 연구자에게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해당 기관이 국내외 합해서 거의 370곳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중요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제공하고 그리고 해외에 중점적으로 대학과 연구소별로 韓國學關係를 연구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편한국사와 같이 널리 읽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간행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부수를 훨씬 늘려 가지고 2,000여권을 찍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 동시에 학교에도 조금 배포하는 곳을 늘려 가지고 배포하고 또 정부간행물보급소에서 市販도 하게끔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각 연구기관에 가는 것은 비매품이지요?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잠시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할 기관이 많으니까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저희는 자료를 全時代에 걸쳐서 全世界에 걸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印刷媒體에 의해서 자료집을 간행해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電算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약 12만건의 이용률이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열어놓고 이용을 시키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24시간 공급을 받아 가지고서 研究의 活性化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0여건의 이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電子媒體에 의해서 21세기를 향하는 그러한 준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상당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일괄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曹雄奎委員 말씀하시지요.

○曹雄奎委員 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작성요령이 있습니까? 각 산하기관별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각 기관별로 특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해오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曹雄奎委員 대부분이 목차를 보면 비슷한데 豫算編成을 보면 제각각이에요. 統計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97년, 98년 했고 또 98년, 99년 했고 또 어느 부서는 비교없이 98년만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통일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마다 다르니까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자료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의 자료들을 보면 편집이 옆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데 教育部는 편집이 이렇게 위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읽기도 그렇고 메모하기도 그렇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다음에 만드실 때는 검토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번째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목적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제도 운영으로 教員의 身分保障과 地位向上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두번째 기능으로는 각급학교 교원의 재심사건 처리, 교육공무원 고충청구 심사, 행정소송 수행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各級學校 敎員의 再審事件 處理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원중에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기타 불리한 처분에는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청구대상은 국·공립 사립학교의 모든 교원이며 청구시기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나’번으로 教育公務員 苦衷審査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조건과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청구사건입니다.

또한 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의 심사를 거친 고충재심청구사건입니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시·도별 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行政訴訟 遂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공립교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李在五委員 교원의 재심사건 처리에 있어서 청구시기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는데 청구를 하면 재심이 완결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60일 이내에 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60일 이내에서 30일 연장하면 90일이네요.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최장이 90일입니다.

○李在五委員 최장기간 90일까지는 본인에게 再審의 內容이 통보가 되겠네요?

그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교원이 재심을 요구해서 원래의 처분내용보다 감량된 것, 예를 들어서 파면된

것이 정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5월31일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이 제정되었고 동년 6월19일 대통령령으로 교원징계처분 등의재심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91년7월16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개청되게 됩니다. 94년2월1일 教育公務員法改正法律에 따라서 教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 機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定·現員 現況입니다.

재심위원회 기구는 위원회 밑에 심사1과와 심사2과 2개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4명이며 상임1명, 비상임3명입니다. 위원의 자격은 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학재단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한국교총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임명절차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위원 전원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임기는 상임, 비상임 관계없이 전부 3년입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그렇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19명이고 현원은 21명이고 과원이 2명입니다. 교육연구관 1명 하고 기능직 10등급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2월말이나 99년7월까지 과원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급별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豫算現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8억5,158만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80.7%로 6억8,702만원 경상경비가 19.3%로 1억 6,456만1,000원에 불과합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獨立廳舍를 갖지 못하고 있고 교육행정연수원 기숙사 등의 일부 153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예산현황을 지금 보고하셨는데 혹시 이런 지적은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敎員懲戒

審査委員會 委員이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원이거나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 근무하는 高位 公職者들이 정년퇴직 후에 다시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그것은 李在五 委員長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징계재심위원회가 91년도 開廳 이래 단 한번도 정년퇴직자를 위한 위원 임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교육부나 학교나 이런 데서 停年退職하고 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없고 그럼 현역에서 임명합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럼 현역을 임명합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현역임명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일반직 직급에서 완전히 사표를 내고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21명이 근무하는데 나머지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다 1명씩 있지 않습니까? 밑의 6급, 7급 이런 것은 一般職이니까 관계없는데 3급 이상이 인원수는 몇 명 안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교육부나 또 다른 教育機關에서 停年退職을 하거나 名譽退職을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다음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연도별 再審請求事件 處理狀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것은 생략하고 총 91년 개청이래 98년8월24일 현재 1,38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347건이 처리되었으며 지금 현재 4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인용이 545건, 기각이 377건, 각하 및 취하가 42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인용률은 5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387건중에서 國·公立이 650명으로 46.9% 私立이 737명으로 53.1%에 해당되므로 國·공립,

사립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각급학교 교원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1,387명중 유치원·초등학교교사가 197명으로 14.2% 중·고등학교교사가 742명으로 53.5%, 대학교원이 448명으로 32.3%로 중·고등학교교사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내용입니다.

총 합계 111건 중에서 8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4건은 현재 行政法院에 1건, 高等法院에 16건, 대법원에 7건이 진행중에 있고 처리내용은 57건이 확정되었고 그 중에서 46건이 저희들이 승소한 내용입니다. 취하가 15건, 피고경정등으로 해가지고 전체 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苦衷審査 내용입니다. 총 합계 55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인용 10건, 불인용 24건, 각하 18건, 취하 3건입니다.

다음 其他事項입니다.

委員會 構成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委員長과 委員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내용은 표에서와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再審 進行節次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處分廳으로부터 징계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各級學校 敎員은 再審委員會에 再審請求를 내게 됩니다. 이때 처분청은 징계등 기타 불리한 처분의 처분권자 즉 교육부, 교육청, 학교법인이 되겠고 이때 처분청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징계등 불리한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재심청구를 받은 再審委員會에서는 處分廳에 再審請求 內容을 보내면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변명서 제출을 받으면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받은 변명서를 보내면서 변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분청에서 받은 辨明書와 辯論書가 懲戒再審委員會에 전부 다 모아지면 양 당사자간의 주장을 정리해서 口頭審査, 書面審査를 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각하, 기각, 취소, 변경, 확인, 이행명령 등의 결정이 따르고 決定書가 작성되면 위원장과 審査會議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해 가지고 이때 再審委員會 決定에 대해서 교원

이 불복하는 경우에 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이상 再審委員會에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教育行政研修院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教育行政研修院所管業務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一般現況, 主要業務 推進現況 그리고 참고로 '97年度 主要事業 推進實績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一般現況이 되겠습니다. 저희 研修院 沿革을 말씀드리면 1970년에 中央教育行政研修院을 설립해서 74년, 81년 개편을 통하고 최근에 96년7월5일자로 지금의 명칭인 教育行政研修院으로 개편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機能은 教育행정 담당공무원인 教育행정직 및 教育전문직에 대한 教育훈련과 연수관련 연구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組織 및 人員은 원장 밑에 3과1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教育공무원 26명, 일반직공무원 16명, 기능직공무원 14명, 계 56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職制改正 및 定員調整으로 16명이 過員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삼청동 25-1번지가 되겠습니다. 4,792평의 부지에 건물이 3,842평, 본관이 2,115평, 기숙사, 기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教育機資材는 환동기, 액정화면 등 기재가 144점, 教育연수에 필요한 圖書가 2만296권, 기타 비디오, 필름 등 視聽覺資料가 3,824점이 되겠습니다.

'98年度 豫算은 총액 36억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人件費가 약 53%, 基準經費 8%, 經常事業費가 3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총액 역시 거의 동일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主要業務 推進狀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教育研修의 目標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公職倫理觀을 함양하고 教育의 質 改善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教育改革 實踐意志를 확산함으로써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教育인재를 양성함에 두고 있습니다.

研修對象은 21개 과정, 90회, 4,351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4만1,3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教育장급이 180명, 지역을 대표하는 교장 675명, 教育전문직 1,174명, 기타 일반행정직 등 해서 2,322명이 되겠습니다.

研修內容은 國家競爭力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촉진, 教育의 質 改善을 위한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제고, 직능별 역할에 대한 創意的·效率的인 職務遂行 능력 배양, 情報活用 및 外國語會話 능력 신장, 國家意志 및 教育政策에 대한 이해의 확산, 公職倫理觀 確立 및 관리능력 신장을 주요 연수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렸습시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21개 과정, 총 90회, 4,351명 중에서 8월25일 현재 49회, 2,682명, 61.6%를 연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계속해서 금년말까지 연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1개 과정별 研修 概要는 4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研修發展 支援業務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教育研修發展 研究大會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에 16개 시·도 教育청이 설립한 敎員研修院이 있습니다. 이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教育훈련 발전을 위해서 연구 분위기 조성 과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번 교관의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敎授要員 合同研修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분기를 마쳤습니다.

'다'번 本院 敎授要員이 중심이 되어서 연수관련 공동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연수내용의 질적 향상과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습니다.

'라'번 研修運營 事後評價를 연 2회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教育과정 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咸鍾漢 委員長; 金日柱 幹事와 사회교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4종의 研修資料를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in Korea, '98년 화보인데 이것은 격년제로 한 해는 화보를 하고 한 해는 책자를 발간해서 해외의 주요 우리 在外公館과 韓國語 研究機關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教育研修, 研究發表文集, 研修論叢은 계속해서 매년 발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업무중에서……

○李在五委員 잠깐요, 研修資料 교육연수 1,000부, 연구발표문집 600부, 연수논총 300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배포합니까?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16개 각종 教育研修機關, 圖書館 그런 데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국내의 각 도서관?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李在五委員 各級學校에 주는 것은 아니고?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각급학교도 부수로 봐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요 도서관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육부 위임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장학사 12명을 선발업무를 위탁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曹雄奎委員 잠깐만요,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教育委員들에 대한 研修프로그램이 있습니까?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교육위원들에 대한 저희들 자체연수는 없고 教育部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연수원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曹雄奎委員 과거에 했었어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금년에 제3기 146명에 대한 研修計劃이 成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賢委員 교관요원 합동연수 또는 본원 교관요원 해서 敎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교관이 敎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이것이 지금 公務員 教育訓練法上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敎授要員인데 현재 용어가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교수요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賢委員 예, 알겠습니다.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다음은 國際教育振興院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國際教育振興院所管業務報告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一般現況은 기능, 연혁, 기구 및 정·현원, 예산 및 시설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國際教育振興院의 機能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在外國民의 教育, 國際教育交流協力, 敎員 및 大學生 등의 國外研修 및 國費留學生 선발지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沿革은 1962년3월1일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로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 지도업무로 출발해서 1992년3월28일자로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마지막줄에 금년 2월28일자로 教育部와그所屬機關職制改正으로 인하여 국장급 2명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의 機構 및 定·現員은 원장 및에 총무과, 교학과를 위시한 6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80명이며 教育公務員이 43명, 一般職公務員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의 豫算現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의 예산은 총 66억7,4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합친 사업비가 56.1%가 되겠습니다. 施設은 1,300여평의 본관 한 동과 1,500여평의 기숙사 한 동, 기숙사는 최대 수용인원이 37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제교육진흥원의 위치는 대학로 동승동 18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主要業務 推進計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在外同胞 子女들에 대한 대학예비교육과정을 강화하고 歸國學生에 대한 적응교육을 다양화하고 母國招請研修를 내실화하고 각 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어, 한국사 교재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등의 일을 해서 世界속에 雄飛하는 韓國人像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在外同胞教育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大學豫備教育課程은 1962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 올 수 있는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국내대학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외국에서 12년동안 初·中等 教育課程을 전부 마친 학생이 현재 107명이 10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9개월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韓國語, 韓國史 등을 교육시켜서 국내 대학에 진학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高校豫備教育課程은 72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두 사람의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 短期教育課程은 81년도에 개설된 과정으로서 모국어 및 전통문화 이해를 희망하는 중졸이상 50세이하의 대상으로서 현재 금년에는 120명의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석달동안이며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등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계절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일동포 대학생 춘계학교 해서 금년도 81명을 연수를 시켰고 두번째는 재외동포 중·고생 하계학교 이것도 73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재일동포 중·고등학생 하계학교 이것은 66년도부터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인 93년도에 개설되기 시작한 구소련 및 중국동포 대학생 초청연수는 50명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韓國語, 傳統文化 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歸國學生 特別適應教育은 89년도에 개설을 해서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하고 귀국하는 초등학교 4·5·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155명을 방학 때 4주씩 일반교과와 특별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在外同胞教育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초청연수는 첫째 재외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금년 27명을 연수를 했고 재외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18명 그리고 韓人教育을 맡고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도 25명 또 中國人 同胞教育關係者 20명을 초청해서 아래와 같은 교육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歸國學生 教育 擔當教師 研修는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추천을 받은 초·중학교 선생님들 78명을 동계, 하계 나누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시·도 교육청의 귀국학생 교육담당 핵심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14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特別研修로서는 원어민 강사 초빙 영어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0명의 국내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을 겨울방학 때 3주간 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강사는 영어권 국가로부터 여덟분을 초빙해서 연수내용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海外派遣 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教育公務員에 대한 職務研修를 한 5·6 일동안 해마다 연말쯤되면 20명씩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教材를 開發해서 공급하는 업무는 95년도에 7개년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실정과 특성이 반영된 교재를 개발해서 총 67종을 2001년까지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방법은 미국이나 일본 그쪽의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고 금년도에는 총 9종 2만1,000권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에 금년도 教育資料 供給豫定은 교과서 230종, 교재 63종, 시청각자료 이것은 국악이라든지 전통, 무용, 동화, 한국의 명절 등 16종 2만1,000점 해서 40만권을 77개국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 완료했습니다.

'다'번에 在外同胞 및 外國人을 위한 韓國語 教育시스템을 금년에 지금 새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외국인이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인터넷 PC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情報通信部에 8억 지원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하고 일어 두 종류로 되어 있고 유아용 단계부터 4단계 60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I, II, 성인용 20단원 이렇게 해서 60단원이고 컴퓨터를 열면 거기에 영어가 나오고 한국어 문자를 볼 수 있고 또 한국어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同胞子女나 美國人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10월1일 개통예정이며 개통되더라도 안정화되려면 한 1년 걸리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쪽 國際教育交流 協力事業은 외국인 장학생 정부초청 사업으로서 이는 文化協定을 체결해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장학생 초청인원은 금년에 60명입니다. 과정은 석·박사연구과정이고 자격은 대졸자이고 선발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골고루 선발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월 6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외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院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각종 외국인 유학생 지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나, 그 반대로 外國政府가 우리 나라 學生을 招請할 경우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파견하는 업무를 국제교육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派遣人員은 저희가 받는 인원보다도 많은 12개국 160명을 내보내고 있고 파견국과 선발요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8쪽, 한국·말레이시아 기술협력에 의한 한국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1년도 마하티르수상의 Look East정책에 따라서 마라공대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300불, 말레이시아 1,300불해서 1,600불 정도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곧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라, 中國 韓國語學科 大學生 招請 韓國語 研修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중국에 있는 대학에 한국어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말이라든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주어서 중국과의 교육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업목적이고 25명이고 6개월 동안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 專攻教科 敎員 國外研修는 선진국의 최신 과학·기술 습득해서 학습지도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과학·실업과 중등교원 150명을 12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64명, 공업과 60명, 농·수산업과 26명 등이며 과목별로는 물리 같은면 독일 뮌헨대학 여기서 석달 동안 연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바, 文化協定 研修는 문화협정에 의해서 상대국이 체재비, 항공료등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의 초청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괴테학연구소에 독어교사 18명, 불어 23명, 일어 51명 등으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사, 國費留學生 選拔試驗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 전략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공하고 소외 학문분야나 비인기학문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학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 30세 미만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합격자 39명을 지난 6월12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금액은 국가예산으로 연간 미국 지역에 1만4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학생인 학생수는 총 5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曹雄奎委員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海外同胞가 550만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이 이민간 지역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쪽에는 특히 輿地에 가 보면 한인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 세대를 내려오면서 韓國文化와의 접촉이 단절되어 가지고 그 正體性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固有文化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진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연수프로그램에 전통문화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 해외동포들로서 오랫동안 고국과 단절된 상태인 輿地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전통문화에 감증을 느끼면서 우리의 춤, 노래, 우리의 미풍양속 이런 것을 좀 계속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참 많더라구요.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한번 카자흐스탄에 가서 시골에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내가 들른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참 후에 보니까 한국사람이 왔다고 해서 나를 보러 온 거예요. 대학생인데 한국에 대해서 감증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그만한 문화센터에 1주일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 춤도 추려고 그러고 노래도 배우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고 건의드리는 것이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國際教育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輿地에서 우리 문화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 혹시 이런 傳統文化를 가르치고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자기 지역에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海外同胞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우리의 正體性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固有文化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美國이나 유럽은 우리 문화원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속에서 한국도 방문을 못 하고 있으면서 祖國文化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동포들이 많더라구요. 이것을 좀 찾아서 그 지역에서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배워서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고국에 초청해서 6개월이나 1년 프로그램으로 가르쳐가지

고 보내서 다시 전승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여기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國立特殊教育院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一般現況과 主要業務推進狀況, 懸案事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一般現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設立目的是 特殊教育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개발 또한 이것을 보급하고 특수교육원에 연수시설을 설치해서 특수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따라서 특수교육의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主要機能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와 특수교육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연수 및 특수교육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主要沿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5월16일 국립특수교육원이 설립되었고 그 해 7월20일 국립특수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96년11월30일 기숙사를 준공하고 작년 7월18일 원격특수교육방송을 개통해서 현재 저희 원이 母局이고 제주·경주·광주·인천 이렇게 4개의 子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組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과 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定·現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정원 20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과원이 1명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8명에 현재 8명이고 기능직은 정원 8명에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1명에 과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施設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3,600㎡에, 건축면적 5,008㎡에, 본관과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기자재로서는 전자동 청능 검사기 외에 25종이 있습니다.

豫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이 21억3,870만2,000원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성 기준경비와 기준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主要業務 推進狀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特殊教育 研究와 研修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연구는 목표를 특수교육의 체제의 개혁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 기초연구와 학습자료개발 학술 및 홍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方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容은 특수교육 기초연구 9종, 특수교육 학습자료 9종, 특수교육 학술 및 홍보 4종, 총 22종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特殊教育基礎研究는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 연구를 위시해서 9종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습자료는 직업적성 평가도구 개발 기초연구를 위시해서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學術 및 弘報는 국내세미나와 국제세미나가 있고 계간지로서 현장특수교육지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연구지를 또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연구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협의와 또한 저희 院에서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國際交流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특수교육종합연구소와 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연구소 또한 호주의 퀸즈랜드대학의 연구소 이렇게 세 개의 연구소하고 협력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特殊教育의 擔當教員 研修입니다.

目標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方針은 수요자중심의 연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및 참여식 연수기회의 확대와 자율성 제고, 연수여건 및 연수방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研修內容을 말씀드리면 교육원에 와서 하는 연수와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시

키기 위한 일반연수, 각종 자격연수, 보수교육, 직무연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연수 12기, 직무연수 4기, 자격연수 1기 총 17기에 연인원수 1,78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80명이 금주내로 연수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課程別 推進計劃 및 實績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 幹事, 咸鍾漢 委員長과 사회교대)

46페이지 懸案事案이 되겠습니다.

障礙人 平生教育 福祉體制 構築을 위해서 장애인 교육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요예산이 약 35억원 다시 말하면 13개의 자국을 설치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소요인력이 전산직 2명, 전문직 1명이 필요합니다.

幼兒特殊教育 기회 확대와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이것도 상당히 현안사안으로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신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의 첫번째 발언시간은 15분 이내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貞淑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국제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國際教育振興院은 80년대 學園事態가 심각한 理念問題로 확산되면서 이념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사회주의국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社會主義도 붕괴가 되고 또 이념적으로 혼란을 겪는 學園事態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관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業務報告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외동포의 교육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在外同胞 教育業務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在外同胞財團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어서 豫算과 人力의 重複投資인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國際教育振興院의 豫算을 볼 것 같으면 경상사업비 13억2,900만원중에서 7억6,500만원이 재외동포교육지원과 재외동포연수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7.6%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在外同胞財團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서 발족이 된 재외동포재단의 목적사업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政府豫算과 人力의 重複投資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在外同胞財團法도 보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으로 되어 있고 國際教育振興院에서 하고 있는 일과 거의 표현상의 차이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教育部에 國際協力擔當官室도 설치해서 국제관련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교육진흥원이 그대로 별도로 존속을 아직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교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교육부의 출연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在外同胞教育같은 것은 교육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 이런 등의 다른 기관부설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外交通商部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교육진흥원과 재외동포재단은 部處利己主義를 떠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豫算과 人力의 重複投資를 피하기 위해서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IMF시대를 맞아 정부조직축소라는 大義名分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교육과정중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歸國學生 特別適應教育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IMF 이전에는 남부럽지 않은 中産層 家庭에서

자라가지고 영문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영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17세 소녀가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어머니가 봉제공장을 다니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다가 두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주유소, 다방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동생의 가출도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집대부 알선조직의 유혹에 빠져서 매일 밤 단란주점과 룸싸롱을 전전하다가 檢察에 의해서 적발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소녀의 딱한 처지를 이해한 검찰이 서울지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姉妹結緣을 맺도록 주선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생활비와 어머니의 새 직장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길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국제교육진흥원의 교육과정 중에 歸國學生 特別適應教育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앞서 소개한 소녀와 같이 IMF등 경제적인 이유로 유학 도중 귀국한 학생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 우리 나라에 재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원장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앞서 소개한 소녀처럼 經濟難 등으로 중간에 귀국한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特別適應教育對象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소녀처럼 유학중 귀국한 고등학생들은 특별적응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적응교육도 중요하지만 家庭事情上 자신이 家計를 책임져야 할 고등학생이 더 쉽게 유혹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연수원장께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性認知 教育을 강화 실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남녀 성의 불평등한 교과내용과 일선교사들의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男女平等을 교육하기 보다는 이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과내용중에 나타난 남녀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먼저 一線教師들의 意識을 改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킴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성의 역할을 고정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性認知教育이 강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許男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委員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한테 묻습니다.

設置目的에 어느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미흡한 것인지, 장래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한테 묻습니다.

海外 流出史料입니다. 수집계획과 새로운 국사연구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연수원장한테 묻습니다.

教育의 質을 改善하기 위한 수준 높은 교수진의 확보방안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장님 直答을 듣고 싶습니다.

教育法 제1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잘 모르겠습니다.

○金許男委員 모르지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된다 말입니다.

교육이념입니다. 弘益人間的 이념아래 民主市民으로 人類共榮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념을 모르고 어떻게 선생들이 교육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우스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법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아도 한 마디 없어요.

교육법을 모르고 그저 덮어놓고 외국에 갔다 와서, 외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外國文化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고 엉망진창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수원장이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법 기본법도 모르니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교육법에 의한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연수를 하되 教育理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철저히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념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보고 교수들을 연수할 적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장한테 묻습니다.

在外同胞 및 外國人을 위한 韓國語教育 活性化 方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曹雄奎 委員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러시아 奧地에 나도 두 번이나 가보았습니다마는 나이 먹은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그 3세들은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韓國學校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다른 데보다는 러시아 쪽에 눈을 돌려가지고 그 쪽에 많은 사람 보내서 韓國語 教育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獨立鬪士들의 後孫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소홀히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신문에 많이 떠드는데 이것이 적당히 적당히 그저 어물어물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불신이 많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런 것을 할 적에 深思熟考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敎員擁護만 한다고 상대편을 괘시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앞뒤에 균형이 맞도록 教育者로서 어디에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부터는 그런 비난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에 盲啞學校라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눈쁜 사람, 말하는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힘드는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노력이 대단해요. 이것을 좀 철저히 해서 이 분들 待遇가 더욱 좋아져서 우리 나라의 特殊教育이 많이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지금 金許男 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教育의 目的이 弘益人間인데 저는 교육위원회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나라 교육의 목적 자체가 入試인 것처럼 혼돈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入試라는 것은 出發點입니다. 준비성을 체크하는 것이 입시이고 그러한 출발점에서부터 到着點인 弘益人間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출발점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가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 나라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金許男 委員님께서 정말 홍익인간에 대한 말씀, 도착점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착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출발점에서만 해매지 말고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承國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委員입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하고 오늘 보니까 국회 교육부 산하기관이나 교육부에서 여성은 원래 여기 못 오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가면 많은 教育者들이 거의 女性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회에 드나드는 공무원중에 여성이 하나도 안보이길래 교육부에서는 여성은 함부로 키우지 않는 것인지 進級을 안시킨 것인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다른 부서같으면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교육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女性으로서 國會에 드나들 수 있는 職位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부산하기관의 보고를 지금 죽 받아 보니까 過員이 많습니다. 과원을 쓰면 반드시 人件費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과원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차제에 교육부에서 쓰고 있는 과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며 지출한 금액은 금년도에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면 내년도 豫算編成을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 20쪽을 보면 77년부

터 92년까지에 1,265명의 留學生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98년까지 계를 내면 29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학중인 것이 516명입니다. 그래서 약 200여명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3년 짜리도 있을테고 2년짜리도 있는데 95년도에 간 사람들이 다 안들어오면 모르지만 밸런스가 안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이유하고 516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인적자료, 人事記錄카드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관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不實工事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혹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거나 고발을 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몇 년도 어느 공사에서 부실이 되어서 회사와 기사를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했다가 혹은 고발을 했다가 하는 것과 그 후에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承國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相賢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賢委員 한나라당 李相賢 委員입니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문서의 보존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政府記錄物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서 보관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소속의 정부기록보존소는 朝鮮總督府 文書와 해방 뒤의 政府文書가 보관되어 있지만 그 밖에도 근대, 현대와 전근대의 정부문서들이 여러 국가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후기와 개화기 정부문서 중심의 奎章閣 文書는 서울대학교에 그리고 對馬島 종가문서 및 일본공사관 기록과 그 밖의 중요 문서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고 창경궁 안에 있던 藏書閣의 도서와 문서는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옮겨졌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상당량의 고서와 고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기록물들이 여러 종류의 연구기관이나 도서관 등에 나뉘어서 보존되고 관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보존되는 기록물

은 각 기관으로부터 생성되어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문서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첩되어 보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규정없이 먼저 수집한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기록물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각의 保存機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政府樹立 50년이 되도록 政府記錄文書保存體系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國家記錄物을 統合的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가칭 國家記錄管理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國家機關에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는 전·근대, 근대, 현대에 걸친 모든 國家文書를 한 곳에 모아서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의 國立記錄保存所 같은 종합적이고도 권위있는 國家記錄管理廳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委員長의 견해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協議體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런 협의기구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國史編纂委員會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國際教育振興院長께 묻겠습니다. 효과적인 財政事業의 外部資源活用方案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5월경 企劃豫算委員會는 내년부터 청사관리, 박물관 운영, 국도 유지·보수, 전산운영 등 26개 부처 96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 또는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은 財政事業의 外部資源活用指針을 각 부처에 통보했고 96개 사업의 人件費와 事務費를 用役費로 바꾸어서 來年度 豫算編成에 반영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國際教育振興院과 관계있는 사업은 國際交流事業 중에 教材開發 供給 또 外國人 獎學生 招請事業 그리고 留學試驗管理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시달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對象事業 중 교재개발만 민간위탁사업으로 조정되고 교재공급부분은 振興院에서 계속 맡기로 하고 이것을 내년 豫算案에 반영키로 했고 외국인 장학생 초청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비 대부분이 獎學金이기 때문에 振興院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현재 동 振興院과 관련있는 재정사업의 외부 자원활용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員懲戒再審委員長께 묻겠습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會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3월 춘지기록부를 작성해 문제가 됐던 女敎師 懲戒에 대한 再審에서 懲戒水位를 대폭 경감해서 社會各界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킨 金命坤 委員長이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再審委員會의 業務報告書에 의하면 98년8월24일 현재 213건의 再審請求事件 중 취소, 변경 등과 같은 認容件數가 103건으로 76%의 認容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재심위원회에 120건이 청구되어서 이 중 58건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경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再審委員會의 認容이 매우 높아서 비리교사에 대한 징계가 재심위원회에서 번복되거나 경감되어 敎育界의 非理剔抉에 대한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지기록부사건뿐만 아니라 96년도에 있었던 學校機資材 導入過程에서 納品業者로부터 수백만원의 謝禮費를 챙겨서 파면 또는 해임되었던 11명의 초등학교 교장 가운데 9명도 3개월의 停職處分만을 내리고 나중에 復職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부터 조금 전에 李在五 委員께서도 요청을 한 것과 다소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96년부터 98년도7월말 현재까지 재심청구사건의 접수내용, 접수일자, 청구인, 재심결과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위원회와 관련해서 敎育部는 敎員地位向上 特別法을 改正하여 위원회의 再審決定에 있어서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 學父母關聯團體, 言論關聯團體 및 辯護士團體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서 위원회 운영의 代表性和 公正性を 높이기 위한 法律改正案을 7월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敎育部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개정안대로 再審委員會가 구성된다면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동시에 위에서 예시했던 바와 같이 再審決定內容과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 사이에

는 너무나 심한 격차가 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판단을 보다 客觀化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연구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相賢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입니다.

먼저 次官께 두 가지만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傘下機關 業務報告를 이렇게 받아보면 敎育部 傘下機關이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敎育改革의 차원에서 제 생각은 일견 이 많은 단체들이 좀 산만하고 또 업무가 중첩되고 또 豫算執行에 있어서 事業內容보다 人件費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편 보면 다 제 固有機能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을 調整이라는 이름으로 統·廢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敎育部가 좀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 예산이 많으면 또 줄이고 예산이 적으면 늘리고 해서라도 남들이 볼 때 그냥 놀고 먹는 그냥 기관이다 아무 할 일 없이 봉급만 타먹는 기관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敎育部가 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번째는 敎育界의 改革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일견 敎師들의 非理問題가 왕왕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學校敎育보다 社會敎育이 앞서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들에 대한 尊敬의 度가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호기심으로 또 선정적으로 자꾸 교사가 잘못된 것, 교사의 비리 이런 것만 들추어내게 되면 점차적으로 敎育改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교사들 징계하는 것처럼만 되어버리면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교사의 비리가 언론에, 내가 뭐 있는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되어서 보도되었다가 한참 보면 흐지부지되어서 또 없어져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의 과대포장되어서 교사 전체가, 敎育界 전체가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尊嚴과 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教育改革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一線教師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두 가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實務的인 것은 몇 가지 該當 長님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學術院 事務局長님, 學術院의 研究支援 98年度 課題의 研究責任者를 보면 저희들이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 혹시 研究責任者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무슨 研究責任者 選定委員會 같은 제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그러면, 또 한 번 이 지원을 받은 교수는 다음에 다시 지원을 못 받는 건지 보면 옛날 元老教授님들이 주로이고 젊은 新進教授들이나 新進學者들은 보면 거의 없거든요.

支援對象,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성함을 보아도 주로 원로교수들이고 중진학자들이나 소장학자들은 이 지원대상에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무슨 研究責任者 選定 그런 基準 같은 것이 學術院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지 이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좀 비율별로, 그 분야에서 원로교수가 몇 분 있으면 또 중진교수나 소장교수도 또 몇 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학문을 또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敎員懲戒再審委員長님, 아까 자료를 제가 일견해 보니까 公立學校보다 私立學校 敎員이 再審請求率이 더 많네요?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약간 많습니다.

○李在五委員 그것의 혹시 私立學校 財團의 非民主的 運營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私立學校 敎員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사례가 公立學校보다 더 많은 건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알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전에 趙宣濟 次官께서 國際教育振興院에 계셨지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李在五委員 제가 자료를 좀 챙기려고 작년도 國政監查 會議錄을 좀 보았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 건지 그 한글학교의 현재 特性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권까지 확대되는 敎材開發共同委員會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敎材開發共同委員會의 構成의 推進經過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外國人學生 獎學生과 관련해서 國際教育振興院이 외국인 장학생 관련에 새로운 方向設定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다음 歸國子女 適應教育후에 적응정도분석평가서가 있는 건지? 최근 5년간의 귀국자녀들의 國內教育의 적응실태, 총학생수 또 부적응학생의 원인별 분석 또 자퇴생수, 재출국학생수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귀국했는데 적응 못해서 다시 또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 그리고 귀국자녀 적응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北韓의 在外國民教育과 관련해서 북한의 在外國民教育政策에 관한 파악 및 對應論理開發 등에 관한 研究推進成果가 나와 있는 건지? 북한도 자기네들이 무슨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네들 국민들에게 무슨 교육시킨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으면 朝總聯에게 지속적으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중국 延邊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자기네들 化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것과 그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지?

북한은 어떻게 자기네들의 體制와 理念을 同質化하기 위해서 외국의 교포들을 교육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對應論理 같은 것이 개발되어 있는 건지? 특히 韓國史部分에 있어서 역사왜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끝으로 海外入養兒와 관련해서 原語民講師 招請事業에 입양아를 포함해서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지요?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예.

○李在五委員 그 추진성과 또 올해 초청강사 중에 입양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인데 외국에 입양을 갔는데 다시 이 사람들을 원어민강사로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예.

○李在五委員 그리고 教育行政研修院長 오셨지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李在五委員 오늘 業務報告를 하도 많이 받아서 저도 막 헛갈립니다. 연수원에서 각 직급별로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李在五委員 뭐 2일간, 10일간 며칠 그 기간에 따라서 제1일, 2일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별로 해당되는 것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李在五委員 예,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李在五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在五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曹雄奎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曹雄奎委員 曹雄奎 委員입니다.

지난 번 教育部 質疑에서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지금 위기고 教育改革의 必要性은 거의 每政權마다 강조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실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그러나 지금 교육개혁의 必要性, 當爲性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교육개혁, 우리가 바라는 그런 21세기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制度的, 法的 改革과 또한 예산의 투입 같은 것이 필요함이다마는 우선 오늘의 교육의 문제점을 볼 때 그런 모든 제도적, 법적 개혁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教師들 그리고 教育公務員들 그리고 學父母들, 그들의 교육에 대한 자세 혹은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教育目標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의 실효성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教育行政研修院의 業務報告를 보면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直視되고 있습니다. 研修目標라든가 혹은 그 研修內容은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과연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싶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教育行政研修院에서 상당수의 교사라든가 教育專門家 혹은 教育長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연수내용, 첫번째 國家競爭力提高를 위한 意識改革 促進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가 意識改革이라는 말을 거의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사를 상대로 한 의식개혁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또 구호로만 의식개혁을 외쳐봤자 우리 국민의 의식이 달라진 것을 별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教育改革이 성공하려면 우선 교사들 教育公務員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教育行政研修院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우리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식의 問題點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개혁이다 하면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하는데 우리 의식이 지금 어떻게 문제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정리한 것이 있어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그것은 教授들의 講義內容에……

○曹雄奎委員 글썽,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니까 이것이 실효가 없는 거예요. 講義教授들에게 말긴다, 교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각기 자기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사회라면 그렇게 말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教育行政研修院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 우선 어떤 의식이 어떤 점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죽 정리해 주세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曹雄奎委員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용면에서 바꾸겠다, 우리 국민이 최소한도 이런 의식의 틀과 의식의 수준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주세요. 교사들이 그런 것에서 생활화될 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것이 되어 있다면 人性教育이 따로 필요없어요. 그것은 言行에서 나오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식만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아동들이 제대로 갖추어야 될 人性이라든가 教養이라든가 시민으로서의 資質을 못 갖고 크다 보니까 그런 못 갖춘 아동들이 많이 성인이 되어서 법도 뭘지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저 적당히 血緣, 學緣에 따라서 공사를 구별 못하면서 일처리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 이래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다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意識改革 促進 하셨는데 제가 부탁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저 도 한번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도 할게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曹雄奎委員**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교수들에게도 최소한도 이런 기본 위에서 意識改革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수혈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은 우리가 뭔가 共感帶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제각기 교수들에게 믿고 맡기면 衆口難防이예요. 이 사람은 무슨 산으로 가려고 하고 저 사람은 바다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의식개혁이라 하면 듣는 사람이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하는 자료를 좀 한번 연수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曹雄奎委員**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같이 걱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教育委員 選出이 끝났지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曹雄奎委員** 全國적으로 180명이라고 하셨어요? 몇 명입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146명입니다.

○**曹雄奎委員** 任期는 2년이지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4년입니다.

○**曹雄奎委員** 4년인가요?

이 교육위원에 관한 교육부의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學校政策室입니다.

○**曹雄奎委員** 그리고 地方教育廳도 학교정책실에 소속됩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教育청은 의사국입니다.

○**曹雄奎委員**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教育委員이라든가 教育廳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教育自治라는 측면에서 다 생기는 것 같은데 教育委員의 기능 혹은 역할, 책임이 어떤 것이며 또 教育廳의 機能, 役割, 責任이 어떤 것이고 豫算은 어떻게 편성되고 이들이 가진 權限은 무엇이고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曹雄奎委員**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지방에 갔

다가 우연히 여러 지방유지를 만나 얘기하는 가운데 그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번 教育委員 選出은 돈 쓰는 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육위원 그 분이 '자기도 여러 기관에서 選舉人團을 만나지 말라고 해서 사실 안 만났다 그러나 전화들이 와서 선거인단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는 안 주었다 이런 얘기에요.

어느 정도 이런 不正選舉가, 金品撒布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거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선거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혁하려고 애씁니다마는 國會議員 選舉도 돈 안쓰는 선거 한다면서도 오늘 일요신문에 보니까 이번 補闕選舉에서도 어느 후보는 5억을 썼다고 아주 활자가 내 주먹보다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아주 부끄러운 얘기에요.

그런데 教育委員들마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고 이것이 無報酬職인줄 아는데 보수가 없는 것이지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회의비……

○**曹雄奎委員** 회의비만 있고, 그러나 엄청난 豫算을 다루니까 利害關係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教育問題를 생각할 때 정말 교육위원이다 하면 자기 지역에 교육이 참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가야지 무슨 명예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돈 써 가면서까지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教育委員으로 선출된 분들의 身上資料를 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이제 교육위원이 다 젊은 사람화한다.' 이번에 상당히 世代交替가 있었던가 보지요? 왜냐하면 選舉人團이 다 젊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짝어 주어가지고 教育專門家라든가 교육을 평생 천직으로 삼고 교육에 봉사했던 그런 어르신들은 거의가 아마 이번에 낙선한 모양이에요. 돈도 안 쓰셨거니와 혹은 또 아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選舉人團을 構成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랜 경험과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잘 하려고 하셨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말 일부겠지만 후보에게 돈을 요구했고 또한 후보 일부는 돈을 뿌려서 그 결

과로 당선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는 것인지 후퇴하는 것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우리 政府에서도 절대 부정이 없다 하는데 부정을 용서 안 한다는 이런 정부 밑에서도 이런 것이 뒤틀거래로 아직 일어난다 하는 것은 制度上에 盲點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검토 연구해 가지고 教育委員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資質을 哲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는 우리 教育改革이 실종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교육위원 되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敎壇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教育部에서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합니까?

모두 이런데 익숙해 가지고 이제는 충격을 안 받아요. 우리 사회가 이것이 걱정이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분개도 하고 충격도 받고 이것 고쳐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어야 될텐데 우리 주위에서 하도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 사회가 멍들고 우리 아동들이 멍들고 우리 국가의 장래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教育部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司法府와 협조하실 것은 협조해서 하고 또 우리 國會次元에서 조사를 하시거나 해서 다음부터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教育委員들 研修하니까 연수를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해서 한다 하는데 그것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일단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들어와서 제대로 4년이면 4년동안 教育委員으로서의 權限行使와 더불어 자기 責任과 교육에 대한 獻身的인 어떤 기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니까 연수형식이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의식개혁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합니다.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시고 내용을 좀 짜보세요.

그래 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조금조금 변화를 가져 와야지 그렇지 않고 豫算 17조억, 18조억씩 퍼부어 가지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 국민의 혈세인데 한 푼 한 푼 쓰는 것을 우리가 아껴 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제가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金日柱 委員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國立特殊教育院에 障礙人 教育機會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教育福祉國家의 實現은 교육기회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障礙人에 대한 教育機會 不平等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障礙人의 就學率을 보면 유치원 6.8%, 초등학교는 34.0%, 중학교는 17.7%, 고등학교는 9.7%, 대학은 0.9%에 불과합니다. 非障礙人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완전히 취학상태이고 고등학교도 95%나 됩니다. 대학도 69%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障礙人의 教育機會는 매우 열약하고 특히 高等教育機會는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高等教育 受惠率이 44%대와 47%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0.9%대 69%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예, 현재 統計上으로는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은 障礙人들의 高等教育 受惠率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特殊學校 設立의 필요성인데 경기도 동북부 의정부, 동두천, 양주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障礙人의 特殊學校가 고양, 파주, 일산 3개 지역에는 4개교가 있는데 반해 경기 동북부지역에는 한 곳도 없이 100여명의 장애아들이 자동차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씩 걸리는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예.

○金日柱委員 때문에 身體的인 어려움과 함께 經濟的인 부담이 커서 많은 장애아들이 취학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학생들과 統合教育體制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특수학교

마저 편중되어 있다면 장애아들의 소외의식과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원장께서는 地域別 特殊學校의 新設과 관련하여 그 실태 파악과 신설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도 절의할 것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국정절의에서도 그날 아마 장관께서 다른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차관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했는데요. 오늘 마침 國史編纂委員長님도 오시고 했는데 우리 나라 歷史 教育實態가 이대로 괜찮겠는가?

태반이, 모두가 우리 나라 교육을 걱정하고 教育改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리이니만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절의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初·中·高에 독립된 國史 教材가 없다는 것을 國史編纂委員長께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국사교과서가 독립된 교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教科書는 獨立되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아니 社會科目에다가 묶어 버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初等學校는 묶어졌지요? 사회과에다가 같이 묶어……

○教育部次官 趙宣濟 교과서가 아니고요 선택으로 하느냐 필수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金日柱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教育部次官 趙宣濟 國史 教科書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아니 그런데 獨立科目이 되어 있어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예.

○金日柱委員 그러면 그 독립된 初·中·高의 教材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教育部次官 趙宣濟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金日柱委員 글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교육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나 고등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初等學校 그 이전의 幼稚園 教育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서 독립과목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묶었지 않았습니까? 國史를 이렇게 등한시

해가지고 잘된 민족이 있는가 세계사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아마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미국에 이민간 사람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면 아메리칸 히스토리, 미국 역사에 합격되지 않으면 시민권을 안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보면 修能試驗에도 국사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대학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윤리니 역사니 체육이니 교련이니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司法考試나 外務考試에서 국사시험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교육하겠다는 것입니까?

독일이 1806년에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베를린까지 함락당했는데 당시 피히테 교수가 한 주장 있지 않습니까? '國土는 빼앗겼다 다시 찾을 수 있지만 獨逸 民族의 固有한 傳統과 風習과 歷史와 文化를 뺏기면 독일은 재기불능이다.'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이 歷史教育 運動입니다.

게르만족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과 역사, 문화가 가르쳐 놓으니까 강렬한 民族的 自尊心이 일어나서 대독일 건설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委員님, 그 역사교육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본부 절의시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합시다. 직속산하기관 현황보고이니까……

○金日柱委員 교육행정연수원장도 오셨기 때문에 선생들을 똑바로 교육을 해놓아야 앞으로 교육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어요?

教育改革, 교육개혁…… 대한민국의 개혁을 저위에서부터 외치고 있다구요. 그러나 교육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 나라 교육은 구호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행정연수원장 다 오셨는데 내 오늘 교육행정연수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 교재를 1권씩 분야별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教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亨 예, 알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우리의 국사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농업민족의 후손이라고 그러다가 얼마 안 되었는데 기마민족의 후손이다 해서 정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새로된 교재들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金日柱委員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이 아니겠어요? 教育哲學이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 철학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개혁합니까? 중국이 辛亥革命때 淸朝를 때려부수고 제1차 혁명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망한 이유가 부정과 부패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孫文先生이 三民主義라는 이즘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 삼민주의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생활화하지를 못했어요. 그후 대만으로 물러났는데 대만의 교재를 보세요. 서두가 삼민주의이지.

우리는 몇 개 기관이 보고하는데 弘益人間의 人本主義라는 것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헌법에는 엄연히 우리 국가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 해부터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서구문화도 우리한테 들어오면 韓國化할 수 있는 이념정도가 선행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獨逸도 마찬가지로 낙후되었던 선진국가가 모두 자기 나라의 歷史哲學이 기초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니까 강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덴마크의 그룬트비가 교회목사요, 시인이요, 철인이요, 혁명가요, 정치가입니다. 그룬트비목사가 주장한 것이 독일군대가 남부의 비옥한 땅을 점령했다 말입니다. 독일군대를 몰아내자고 외친 것 아닙니다. 그룬트비 목사가 주장한 것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이 전통기독교사상으로는 덴마크를 근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기독교사상이 아니고 덴마크의 주체적사상의 기독교를 덴마크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7년간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룬트비목사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지성, 자유, 용기, 독창 네 가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 자유, 용기, 독창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노르웨이를 우리가 지배했다 스웨덴을 우리가 지배했다. 고대 우리 선조는 대영제국도 지배했던 민족이다. 1800년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도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강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하

루에 두 끼를 먹어가며 건설한 나라가 북구의 지상낙원을 건설한 나라 아닙니까?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지성, 자유, 용기, 독창, 모방이 아닌 창조다. 이 네 가지 교육목표를 가지고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教育哲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앞에서 次官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요구했지요. 그러니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은 짧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 우리 國難克服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무장시켜서 대개혁의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교육의 뒷받침없이는 개혁 못해요.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를 계속해도 부족하리라 믿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것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國際教育振興院長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외국의 LA라든가 도쿄라든가 오사카 같은 데는 韓人學校, 中學校 課程까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라든가 저 남미에는 중학교 과정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과정만 있고 중학교 과정이 없을 때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나라로 귀국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민간 사람들이 다시 역이민을 온다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역이민을 오지 않지만 그 나라는 꼭 역이민을 와 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그 나라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거기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서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외국에 있는 무역요원이 되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일 할 수 있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파라과이라든가 그 알마타라든가 중학교 과정이 없는 데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國立特殊教育院長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학습자료를 보니까 부모교육자료가 나옵니다. 사실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입니다. 심신장애아, 지체부자유아라

든가, 정박아라든가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은 부모가 그들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을 그대로 버려둠으로써 아픔을 겪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조기에 치유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마침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障 碍 人 成 人 教 育 이 라고 할까요? 平 生 教 育, 職 業 教 育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특수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손끝에 무슨 일이든지 익혀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人 間 으로서 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教 育 部 에서 다른 데 예산을 덜 주더라도 特 殊 教 育 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그래도 눈뜨고 손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좀 나누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번 國 會 에서 豫 算 을 더 많이 배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委 員 會 모든 위원에게 한부씩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 안계신 위원은 書 面 答 辯 을 요청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을 중심으로 口 頭 答 辯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教 育 部 次 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次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朴承國 委員님께서 教 育 部 에서 국회에 나올 수 있는 여성직원 수 및 승진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教 育 部 의 여성직원수는 교육전문직에 13명, 5급이상 16명으로써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教 育 部 長 官 就 任 이후에 역설해 온 女 性 人 力 活 用 극대화를 위해서 女 性 教 育 政 策 擔 當 官 을 공모해서 선발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응모를 해서 女 性 教 育 政 策 擔 當 官 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7월 서기관 승진인사시에는 총 12명이 승진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순서안에 들었던 것은 여성공무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관께서 이중 여성공무원 한 명을 더 발탁·승진시켜서 女 性 公 務 員 書 記 官 4명을 승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教 育 部 에서 현재 있는 過 員 現 況 및 人 件 費 예산충당방법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 建 設 部 에 고발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님께서 教 育 改 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산하단체들의 업무가 산만하거나 중첩되거나 人 件 費 過 多 問 題 등……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教師의 非 理 問 題 나 社 會 教 育, 學 校 教 育 問 題 에 있어서 언론이 선정적으로 교사를 질타하는 문제라든지 과대포장되어서 나오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교사나 교육계 전체가 비난받도록 하는 잘못된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면에서 가능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曹雄奎 委員님께서 教 育 委 員 關 連 해 서 말씀하신 것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日柱 委員님께서 歷 史 教 育 實 態 에 대해서 간곡한 그리고 준엄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될 좋은 教 示 를 주셨습니다.

教 育 哲 學 이 나 國 難 克 服 을 위해서 청년학생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문제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해서 委 員 長 님께서도 우리 민족의 正 體 性 確 立 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 歷 史 教 育 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金許男 委員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弘 益 人 間 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교육근본으로

서 서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데에 대해서 역사교육 문제, 교육철학문제 등 이것은 현재 답변으로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천착하고 노력해서 그러한 教育哲學이 제대로 서고 그것이 教育改革에 제대로 스며들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각 傘下機關長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學術院事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金許男 委員님께서 學術院은 그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미흡한지 철저히 하고자 노력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면 조금전 業務報告時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學術院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원로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優待支援策은 會員으로 선출되면 국가·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예를 수여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學術研究支援으로서는 매년 학술연구 11개 과제, 정책과제 2개, 일반연구과제 2개를 선정하여 研究費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國際學術交流로서 현재 國際學術院聯合會 6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노벨상을 주관하고 있는 스웨덴 왕립학술원등 10여개 학술원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내 우수한 학자를 선정하여 學術院賞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3회에 걸쳐서 160여명이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政策建議로서 매년 2개과제를 선정하여 회원에게 연구하게 하여 政策討論會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學術院은 그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분과회, 부회, 총회 등 내부기구를 통하여 改善策을 활발히 논의하고 스스로 발전 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會長團은 앞으로 우리 나라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각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李在五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學術研究支援課題 責任者 選定基準은 무엇이며 選定委員會에서 선정하는지와 한번 지원받은 경우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그리고 신진학자를 비율별로 정하여 학문연구의 활성화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말씀을 올리면 學術院은 會員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술연구지원과제 책임자 선정은 학술원의 각 분과회의에서 선정하고 학술원 임원회의에서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번 지원받은 회원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진학자가 없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研究費를 학술원 회원에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8년도 研究責任者는 元老會員 위주로 되어 있으나 최근 학술원에는 신진학자들이 신규회원으로 많이 선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신진학자들에게도 연구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國史編纂委員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먼저 金許男 委員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史料의 海外流出問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韓國史 研究에 있어서 國史編纂委員會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海外流出資料의 문제는 말씀대로 戰亂이나 식민지 지배 또 개인의 불법반출로 인해서 많은 자료가, 다양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政府 各機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大學이나 研究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또 政府機關의 주도하에서, 대학의 주도하에서 반출된 자료를 직설적으로 요구해서는 돌아오기가 힘든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회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섭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을 本國으로 반환청구를 하거나, 반환요구를 하거나 하는 교섭이 전개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남대학교에서 일본에 유출된 데라우치 문고라든지 또 정부가 불란서에 丙寅洋擾때 유출된 강화도의 국가기록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러한 유출된 자료의 행방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으며 조사되는 대로 그러한 것을 저희로서는 學問研究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기에 現品을 즉시 반환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사 그 밖의 방법을 써서 도입을 해서 상당한 양을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학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韓國史 研究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사의 연구는 본디 학문연구는 학자들이 개개의 문제의식에서 가지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데는 다소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역사 연구를 심화시키고 정립시키기 위해서 자료적인 뒷받침을 하는 學問機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모로 연구비를 지원한다든지 새로운 연구주제 또는 연구가 미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한다든지 연구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또는 연구성과의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두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귀한 것은 韓國史研究論叢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약 81호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 30년 전후로 연구된 것을 오늘날 시점에서 綜合整理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자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60권으로 된 韓國史라고 하는 개설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행정고시라든가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고등고시에서 과거에는 國史를 시험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항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물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항의해서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저희도 역시 國家機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를 밟아서 건의 드리고 또는 有關學會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데 도움

을 주십사 하는 일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직접 저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항의절차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그것이 이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국사편찬위원회 필요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咸鍾漢 委員長, 金日柱 幹事와 사회교대)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항의보다는 저희가 노력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성과를 연구자료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달에 한번씩 계간으로 韓國史研究會報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약 2,000여부 국내외 전세계의 연구기관에도 대폭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24시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논쟁점이 있는 것이나 또는 사료의 정립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사 연구세미나를 연구자들을 모아 가지고 1차, 2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賢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안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日柱 委員님께서 國史教育에 대한 귀한 조언을 주셨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李相賢 委員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李在五 委員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예,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연수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行政研修院長 高在享** 金貞淑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金許男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내용은 교육기본법상의 弘益人間의 理念을 기초로 한 연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내용을 99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李在五 委員님과 曹雄奎 委員님, 金日柱 委員님의 자료제출 요구는 성실히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金許男 委員님께서 在外同胞에 대한 韓國語教育 活性化 方案과 특히 러시아지역 輿地의 한국어 교육 등에 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教材開發計劃을 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어 61책을 발간 보급하도록 4개 언어권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사도 6책을 발간 보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지역의 재외동포는 약 45만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원을 교육부에서 5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알마타, 타슈켄트 이런 5개소에서 기숙사가 있고 輿地學生들을 불러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광대하고 인원수가 많고 修交된 역사는 짧아서 아직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교육진흥원에 특히 러시아쪽에서 대학 예비과정 학생이 금년에 15명이 왔고 또 단기과정이 27명이 왔고 다음달 9월10일에 러시아에서 同胞教育을 담당하는 30명을 직접 연수토록 되어 있는데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承國 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학생 516명에 대한 인적자료 제출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293명인데 나머지 인원수는 무엇이나고 하명하셨는데 나머지 223명은 92년 이전에 유학 간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 박사 받고 포스트 닥터 7년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숫자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까마는 그 둘을 합치면 516명이 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가서 아직 안온 사람이 223명인데 그러니까 92년 전의 사람들이 이만큼 남아있다 그 말이지요?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그것이 석사, 박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사후 과정까지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國費留學生을 그렇게 10년, 15년 대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석사, 박사하고 포스트 닥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코스를 다 밟는다고 하면 몇 년까지 있습니까?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12년이 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12년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석·박사과정까지만 지원이 되고 지원 끝난 후에 거기서 포스트 닥터를 할 경우에……

○朴承國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경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 빨리 와가지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 거기에서 자꾸 오래 있으면 됩니까? 목적이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혹시 兵役義務를 안하려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교육부에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國費留學生으로 보낼 때 석·박사 그 기간에 한해서 국비를 대주지요?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강제로 귀국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석·박사를 못 받으면 국비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돈 안대주니까 일단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는 教育部의 強制規定이 없습니까?

○教育部次官 趙宣濟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단계 할 때는 오랫동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근무연한을 주고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반드시 그것만이 좋고 능사냐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그 뒤에 自費로 할 때 포스트 닥터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포스트 닥터가 1년 내지 2·3년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계해서 연구하는 美國의 우수한 研究機關들 거기에서 몇 년씩 같이 하고 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 兵役問題라거나 혹은 개인들한테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

다.

○朴承國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516명 자료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예.

李在五 委員님께서 韓國語教材開發共同委員會 構成實態를 물으셨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 자료로 보내 주세요.

○國際教育振興院長 李起虎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국제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특수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金許男 委員님께서 特殊教育發展方案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원이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95년도에 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特殊兒童들에 대한 教育機會 擴大와 教員養成問題, 教育課程問題, 또 行·財政的인 支援體制問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21세기 특수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재작년도에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확대방안문제입니다.

중도장애자들을 2002년까지 거의 100% 다 취학을 시키도록 하고 또 경도장애자들은 特殊學級을 확대하거나 統合教育을 통해서 모든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法制定 및 財政支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교육에 대한 先進 各國의 방향은 주로 統合教育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중하더라도 일반학급에 통합이 되어서 그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도장애자들 중도장애자들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을 때에 이 아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支援教師制度를 도입해서 앞으로 약 5,500명이라는 特殊教育教師를 양성해서 지도하도록 교육부에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日柱 委員님께서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視覺障礙 學生들은 고등교육 입학전형시험에 點字로서 출제를 하도록 하고 또 소요시간도 1.5배 이상을 주고 또한 장소도 특히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便宜施設을 도모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원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大學特例入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자들에게 대학에서 정원의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원에서 그 특수교육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선별하도록 해서 작년도만 예를 들면 530명이 적격, 부적격의 판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 약 525명이 적격자로 판정이 되고 28개 대학에 238명이 입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자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의 장애자들이 高等教育의 惠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을 받는 학교의 시설이 장애자에게 부적합한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장애학생들이 입학이 되어도 적응 못하고 中途脫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원에서 障礙學生 高等教育支援體制라는 연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다 나누어주고 또한 고등학교에도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주로 특례입학에 의해서 입학된 아이들에게 各種 便宜施設을 해주고 교육 다시 말하면 수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나누어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평택에 장애자들을 위한 再活專門大學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일반학생들과 격차가 납니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0.9%고 일반학생들은 69%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장애인이 44%이고 일반학생들이 47%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福祉를 외친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격차가 심하니까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제가 볼때는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학생들의 수준이 修能試驗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입학 데드라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特例入學이라는 것은 각 학교의 과의 특성에 의해서 정원의 30%면 30%를 합격선 이외에다가 합격을 시켜주는 시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약 48%가 합격을 했습니다. 特殊教育對象者 適格者에 한해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京畿 北部地域의 特殊學校施設이나 또 特殊教育에 대한 施設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 동두천, 포천 이 지역은 전혀 없잖아요?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거기에 特殊學級은 있는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가 중하든 경하든 간에 모두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에 재학해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부에는 약 50개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學級施設 設置問題는 사실상 教育監 權限事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몇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을 만날 때마다 그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북부지역에 특수학교를 될 수 있는대로 설치하도록 만날 때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五委員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하고 일반교사들하고 봉급의 수준에 차이가 좀 있지요?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예, 號俸上에 한 호봉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또 特殊教師에 대한 手當이 월 5만원 더 지급이 됩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특수교사의 수당이 월 5만원이고 호봉은 한 호봉이 높으면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약간 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차는 없습니다. 약 한 5만원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실제로 特殊學校를 가 보거나 해보면 또 教育部가 돈이 없기는 하지마는 다른 것 일반 다른 예산을 좀 빼더라도 특수학생을 담당하는 教師들에 대한 수당은 나는 적

어도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프로수로는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면 자료를 제가 앞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離職率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수학생들의 교육이 안됩니다. 5만원 더 올려주어 가지고 누가 그 障礙人들을 자기 자식처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현상을 모르는 行政便宜主義的 計算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나는 그런 것도 教育改革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남하기 싫어하는 데 담당하는 사람들은 俸給을 많이 올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安定的으로 障礙人들의 教育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自負心도 갖고……

결론은 결국은 돈을 한달에 5만원 주던 것을 한 20만원으로 올려준다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劃期的인 좋은 措處라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國立特殊教育院長 金榮桓 예, 알겠습니다.

○李在五委員 委員長님, 제가 補充質疑할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예.

○李在五委員 學術院에서 事務局長 나오셨지요?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예.

○李在五委員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서 南北交流가 民間人交流도 活性化되고 또 經濟交流도 活性化되고 정치와 통일에 대한 어떤 분리 또 통일과 경제에 대한 분리,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상당히 統一政策이 아주 前向的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統一政策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우리 나라 學術院에 상응하는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북한에 學術院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學術院요? 북한의 社會科學研究院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어요?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예, 들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우리 나라 학술원하고 북한의 사회과학연구원하고 交流計劃 또 教授들간에 무슨 共同研究主題…… 여기 우리 학술원에 아주 그야말

로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간에, 학자들간에 합동세미나라든지 共同研究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쯤이면 나는 학술원에서 계획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학술원이 그런 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 아침 會長團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건의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제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分斷이 오래 지속됐던 民族의 同質性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學術分野 뭐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이 접근이 되어서 북한을 녹여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문분야는 학문분야대로, 學術院 같으면 얼마나 접근하기 좋습니까?

이것은 무슨 思想과 理念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經濟學, 自然科學 무슨 人文科學 많지 않습니까?

접근하기 쉬운 非政治分野의 학문교류를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이 나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大韓民國學術院事務局長 柳江夏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國史編纂委員長님……

○金許男委員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이 좀 되는데 延邊大學에서 말입니다. 내가 가 보니까 總長이 내 中學校 同窓關係가 되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統一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 어떤 거냐? 가장 위의 사람들 머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통일하는데…… 그저 아래 사람은 자기 위의 사람을 따라만 가는 것이니까.

그 방법은 延邊에다가 많아도 한달에 한번씩 南北共同研究會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만일에 北朝鮮에서 한 20명 학자들이 왔습니다. 또 역시 우리쪽도 한 20명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분이 仲裁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연구할 때에는 친해진다는 겁니다. 또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또 술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 교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한다면 통일이 가장 빨리 되는 길이다.

이것을 왜 대한민국에서 못하느냐 하고 나한테

同窓關係가 되어서 왜 요것 못하느냐 이렇게 하대요. 내가 와서 언제 그것 얘기하자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오늘 그 말씀하기에 내가 기억되는데 한번 그것 해보도록 이렇게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李在五委員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 學術院의 位相도 세우고 우리 나라 위상도 세우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충 하나만 더 있습니다. 國史編纂委員會 李元淳 委員長님, 좀 나오시지요.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李在五委員 노선생님들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韓國史 또 古代史 뭐 近世史 中·現代史 죽 집필하면서…… 제가 옛날에 民族運動하다가 한 10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우리 나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우리 나라가 쓰는 역사하고 고대사나 뭐 현대사나, 북한이 쓴 것하고 관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요즘과 같은 이런 분위기면 우리 國史編纂委員會에서 韓國史 共同執筆을 우리가 먼저 북한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現代史, 6·25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없다고 보고 우선 남북이 접근하기 쉬운 古代史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부분 또 중세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쓰려고 그러면요 그것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족의 同質性 回復이라는 차원에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차원에서 南北韓 共同韓國史執筆 무슨 委員會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서 접근하기 쉬운 政治的 爭點이 없는 純粹歷史部分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쓰자, 같이 또 國史學者大會도 같이 하자 해서 적어도 서로 45년이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좀 접어두고라도 그 이전의 日帝侵略史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抗日運動에 대해서는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간에 같이 우리 역사를 바로 쓰는 그런 무슨 共同委員會를 만들자, 交換訪問하자 이런 제안을 교육부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정치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國史編纂委員會 이름으로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순수학문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國史編纂委員會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좀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力動的으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을 할 이런 것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사실은 저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82년에 남북간에 정부에서 수뇌가, 延亨默 總理하고 鄭元植 總理가 만나자고 했을 때 南北會談후에 鄭元植 總理하고 交流擔當職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서 그 때에 문제가 됐던 것이 丁未7條約이나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이라는 것이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勒約이다 즉 무효다 하는 것을 저희 學界에서도 제기가 됐고 북쪽에서도 제기가 되어서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자, 남북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史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발이 적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것을 의논해서 그 당시 鄭元植 總理 이름으로 북쪽에다가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默默不答으로 그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고 또 그것은 그 당시 상황하고 작금의 상황은 이제 李在五 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非政治的인 접근이 쉬운 것이 考古學關係라든지 이 고고학 관계도 사실은 檀君朝鮮問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고 고학의 문제 그리고 美術史의 문제 또 학문적인 문제로 다룬다면 古代史의 문제 이것이 그쪽이 고대사체계가 몇번째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접근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國史編纂委員會가 國史編纂委員會라고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역시 國家機關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이 學會, 학문조직들이 나서서 지금 접촉되고 있는 것이 대개 新聞社의 研究所나 학문조직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학문관계는, 그러한 식으로 조용하게 지금 말씀대로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진

행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문제는 監督官廳인 教育部나 내지는 우리 統一部하고도 의논이 되어가면서 혼선이 없도록 운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절차는……

○李在五委員 그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나 북한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政府機關입니다. 북한에 있는 것이 무슨 다 그 社會主義國家라고 하는 것이 다 학문까지도 자기네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상대하는 것은 저쪽에는 民間團體가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쪽의 민간단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國史編纂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마는 그 固有領域이 非政治分野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정치분야가 먼저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統一問題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필요한 시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부분을 골라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우리 國史를 편찬하다가 보면 古朝鮮부터 시작해서 三國時代, 李朝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는 우리 나라라는 한 역사 아닙니까?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예.

○朴承國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북하고 우리하고 같이 共同執筆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 남한만 생각하는 고대사, 중세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올바른 소위 韓半島의 國史를 편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李在五 委員 말씀하는 것 그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國史編纂委員長 李元淳 알겠습니다. 현격한 史觀의 차가 있고 또 內容體系에 있어서도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해서 관계기관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예.

○金許男委員 敎員懲戒再審委員會 나오시지요.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金許男委員 아까 답변했습니까?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저는 李相賢 委員 님에 대해서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내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 안 했잖아요? 내가 불러놓고 책망까지 했는데.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죄송합니다.

○金許男委員 하도 기다려보니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懲戒再審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敎員들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호는 보호할 것만 보호해야지 보호 못할 것을 보호하면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나? 교육을 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얻은 것 이것은 정말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이 무릅쓰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再審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더해 주어야 되지요. 알겠어요?

요전번에 그 여자 같은 것처럼 돈을 받아먹고 이래 가지고 文書까지 다 만들어놓은 것을 보호해 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교육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실수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 딱 때린 것이 그것 가지고 귀를 어쨌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저 늘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교육을 하다가 어떻게 된 것은 봐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파렴치한 일로서 일어난 사건을 재심할 적에는 더욱 더욱 懲戒를 해서 혼내 주어야 돼요. 그래야 敎育機關이 잘 삽니다. 이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후에 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淵洙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書面答辯書등 자료는 성의껏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께 1부씩 배포해 주시며 書面答辯部分은 오늘 會

議錄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直屬機關長을 비롯한 關係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敎育委員會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出席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李相賢
李源馥	李在五	曹雄奎	盧武鉉
金日柱	金許男	金顯煜	朴範珍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鄭 富 永
專 門 委 員	尙 元 鍾

○出席政府委員

次 官	趙 宣 濟
企劃管理室長	金 成 東

○政府側參席者

敎員政策審議官	朴 贊 奉
---------	-------

○其他參席者

大韓民國學術院長	柳 江 夏
事務局長	
國史編纂委員長	李 元 淳
敎員懲戒再審委員長	金 淵 洙
敎育行政研修院長	高 在 亨
國際敎育振興院長	李 起 虎
國立特殊敎育院長	金 榮 桓

【報告事項】

○意見提示

技術研究集團化團地支援에 관한 特別法案

(8월21일 朴光泰, 金鍾學, 韓和甲, 具天書, 李台燮, 千正培 議員外 130人 發議)

8월21일 産業資源委員長으로부터 關聯委員會로서 意見을 提示함.